



중국, SIAL China 2010 개최 개최 10주년 맞아 다양한 행사 열어

중국 본토에서 열리는 최대 식품 음료 무역 전시회인 SIAL China가 개최 10주년 기념을 맞아 제11회 전시회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5월 19일부터 21일까지 열린 이번 전시회에서는 76개 국가 및 지방(vs 2009년 50개) 1천3백 39개 출품업체(vs 2009년 1천57개사)가 참석했으며 일본, 한국, 우루과이 등 15개 국가관이 참석했다.

중국관은 유제품/당과&과자/와인&주류/음료/커피/식품첨가물 등 6개 분야별로 전시됐다.

이번 전시회에는 농수산물유통공사 지원으로 한국식품공업협회와 세계김치협회, 문화일보 공

동으로 한국관을 총 55개 부스 5백10m² 규모로 구성했다. 사상 최대 규모의 한국관이 구성된 SIAL China 2010에는 김치 홍보관을 비롯해 건강기능식품(통마늘, 인삼제품), 차류(커피, 국산차, 전통차), 음료 등 다양한 제품을 선보였다.

참가 업체는 (주)빙그레, 대상(주), 천호식품(주), 천호로드샵, 해태음료(주) 등이 한국관으로 참가했으며 강원테크노파크(동화, 이정희 손맛젓갈 등 젓갈업체 2곳)와 곡성멜론클러스터가 개별 참가했다.

이번 SIAL China는 전시회 10주년을 기념하는 다양한 부대행사가 열렸다.

SIAL China 2010의 개막식에는 Jorge Guajardo 주중 멕시코 대사, Marek Sawicki 폴란드 농업부 장관, Jakub Sebesta 체코 농업부 장관, 미국 농무부의 Janet Nuzum 위원, 산둥성



▲ SIAL China 2010

의 LV Wei 씨, 헤이룽장성 농업국 SUI Fengfu 국장 등 각국 장관과 대사 등 고위급 인사들이 참석했다.

한편, Escoffier社와 공동 주최한 제3회 쿠킹 트렌드관에서는 다양한 국가의 셰프들이 자신의 요리 비법을 선보였다.

요식업에 종사하는 많은 방문객들이 쿠킹 트렌드관을 즐겨 찾아, 높은 수준의 요리 시연을 지켜봤다.

5월 20일 열린 아시안 영 호프 세트 대회 (Asian Young Hope Chef) 결선에서는 홍콩, 중국, 마카오, 태국, 싱가포르, 한국 총 6개국 후보들이 관중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경합을 벌인 결과 한국의 르 시엘 블루 레스토랑의 박종희 셰프가 그랑프리를 차지했다. SIAL China 전시회에 출품한 식음료 신제품을 집중 조명하는 제6회 트렌드와 혁신 대회는 11개국 22개 혁신 제품을 선보이기도 했다.

2 개의 스페셜 상은 Vega Carabana사의 아동 건강을 위한 올리브 오일 “Peque Oliva”(스페

인), 그리고 Beijing April Gourmet for Benco사의 편리한 파우치 형태의 유아용 1백% 천연 과일 과 채소 퓨레 “Fruit and Nothing Else Rafferty’s Garden”(호주)이 차지했다.

한편, 베스트 바이 차이나 대회 즉, 대표적인 중국 와인 대회가 열려 8개 분야별로 총 8개의 상이 수여됐다.

SIAL China 1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프레스티지 파티 갈라 디너에서는 총 6백여 명의 귀빈이 참석, 성황리에 개최됐다.

또한 제 2회제를 맞이하는 와인 문화 교육관은 큰 성공을 거뒀다.

이 특별 전시 공간을 통해, 수많은 방문객들이 와인 업계 전문가들과 만나 원산지, 포도 품종, 톱 브랜드의 3가지 메인 주제를 놓고 아이디어를 나누는 자리가 마련됐다.

이 외에도 언제나 시장 상황에 민감한 SIAL China는 2년 연속, 중국 최고의 소매, 유통업체 (까르푸, Sinodis, City Shop, Lianhua, Jiadeli, Goodwell, Spar)와 SIAL China 출품업체간의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특별 전시관을 마련했다.

올리비에 다라스(Olivier Darras), SIAL China 전시회 해외 홍보이사는 “76개 국가와 지방에서 온 1천3백39개 출품업체와 3만5백18명의 사상 최대 규모의 식음료 업계 방문객, 그리고 출품업체들이 만족한 수준 높은 방문객을 통해 SIAL China가 중국 식음료 분야에서 독보적인 전시회임을 확실히 알 수 있었다”고 밝혔다.

SIAL China는 내년 5월 18일~20일에 열릴 예정이다.



인도네시아, 라벨 규제 9월 1일 시행 제품 라벨 강제 규정 관련 법령

인도네시아 정부(Ministry of Trade)는 '제품 라벨 강제규정' 과 관련된 법령(62/M-DAG/PER/12/2009)을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확정했다.

인도네시아로 수입되는 제품과 그것의 포장에는 인도네시아어(Bahasa Indonesia)로 표기된 라벨(라벨)이 부착되어야 한다.

관련 법령 제2조는 라벨이 부착되어야 하는 제품을 4개 군으로 분류했는데 ▲ 분류 1 : 가전제품, 통신 및 정보관련 제품(총 46개 대분류) ▲ 분류 2 : 건설 자재(총 9개 대분류) ▲ 분류 3 : 자동차 부품 등(총 24개 대분류) ▲ 분류 4 : 기타 제품(총 24개 대분류)이다.

또한 기존 3조와 4조 사이에 3조 A항을 추가했다.

3조 3항에서 지칭한 증명서(DirGen Goods Monitoring이 발급)는 재화를 제조 혹은 수입하는 비즈니스에 유효하다는 내용이다.

이 조항은 이 중간재로 활용되는 재화는 라벨 규제에서 제외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 증명서에서 언급하지 않은 재화를 제조 혹은 수입하는 비즈니스의 경우 3조에 따라 샘플 라벨을 제출해야 한다.

11조 1b항과 2항도 변경됐다.

기존 11조 1b항은 이 규제의 첨부 3에 자동차와 관련된 중간재의 라벨 규정을 제외했다.

11조 2항에서 기존 자동차 생산자에 국한됐던

라벨 예외규정 조항을 생산자, 자동차 Agent(ATPM), 일반수입상, 공급자 등으로 모두 확대했고 DirGen(Goods Monitoring)에 제출해야 할 구비서류를 규정했다.

(국내 생산자)제조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IUI), Supplier 회사인 경우 SIUP(Company Establishment License) 사본, 그리고 제조회사 혹은 생산자와 공급자간의 Appointment Letter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수입상)제조업자는 수입자등록증(API)/사업자등록증(IUI) 사본, 자동차 에이전트는 API/제조업체로부터의 Appointment Letter 사본/해당 자동차 브랜드의 에이전트란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관련 정부기관으로부터) 사본, 일반입상의 경우 API/제조회사 혹은 생산자와 공급자 간의 Appointment Letter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18조 역시 변경됐다.

(a항) 이 규정이 발효되기 이전에 첨부 1~4에 언급된 재화를 생산 혹은 수입한 주체는 발효 후 18개월 이내에 인도네시아어로 라벨을 시행해야 한다.

(b항) 이 규제의 첨부에 포함되지 않은 재화를 제조 혹은 수입하는 비즈니스 주체는 인도네시아어로 라벨을 사용하는 경우 인도네시아 재화의 특성을 고려해 라벨을 지속 사용해야 한다. 인도네시아어로 라벨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인도네시아 재화의 특성을 고려해 라벨을 사용해야 하는 것으로 이 규제 조항은 상당히 모호해 관련 공무원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경우 수입업자의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러시아, 농산품 포장산업 전망 밝아 농업 및 축산업 등 식품부문 투자확대

최근 정부차원으로 국가 식품안보 전략을 확정 짓는 등 향후 러시아의 농업 및 축산업 분야에 대한 투자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런 상황을 반영하듯 경기 침체기임에도 육류가공 등 식품분야에 대한 투자는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1990년대 러시아는 각종 포장제품을 완제품 형태로 수입했으나 2000년대 이후 관련 설비의 수입이 활발해지면서 최근에는 많은 러시아 업체들이 다양한 포장용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포장 설비는 독일, 이탈리아 등 주로 유럽제품이 시장을 장악하며 이에 따라 최근에는 러시아에서 생산되는 포장재의 품질도 많이 향상돼 일부 품목은 품질이 선진국 수준까지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편 농산물 포장재 시장이 최근 몇 년간 빠른 성장세를 보이거나 2009년에는 금융 위기로 인한 러시아 시장의 축소로 인해 한국의 대러 식품포장기계 수출은 1백40만9천 달러를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 68.6% 감소한 바 있다. 그럼에도 포장 산업은 러시아 내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할 분야 중 하나로 전망되는 가운데 본격적인 경기 회복세가 예상되는 2011~12년에는 폴리머(Polymer) 분야를 중심으로 투자가 대폭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러시아 내 포장재 생산량은 2007년 전체의 약 60% 정도였으나 생산 제품의 품질이 점차 개선

되면서 최근에는 80%까지 확대된 것으로 집계됐다.

현지 전문가들에 의하면 최근 산업용 포장재 시장은 연평균 10~12%, 식품용 포장재 시장은 15~16%의 가량의 성장세를 보였다. 시장 규모는 지난 2006년에 78억 달러 규모였으나 2009년에는 1백20~1백30억 달러로 집계됐으며 식품용 포장재가 전체의 약 50%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러시아에서 포장재를 생산하는 업체는 약 4천여개 업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최신기계를 수입해 품질이 많이 향상되고는 있으나 전반적으로 품질 및 디자인이 외국산 제품에 비해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러시아 내 포장 산업의 약 60%는 모스크바를 중심으로 한 수도권 지역에 집중되며 기타 북서부(상트 페테르부르크) 지역, 서부 시베리아 지역, 북 카프카스 지역, 우랄 지역 순으로 발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식품안보 전략 확정 등으로 식품산업과 함께 러시아 포장 산업도 지속 발전할 것으로 전망되며 2000년대 이후 수입된 기계류의 교체수요에 따라 기존에 유럽 제품에 의존했던 상태에서 탈피해 최근에는 품질과 가격경쟁력을 보유한 아시아 제품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 또한 정부의 국내 산업육성책으로 2009년부터 포장재 생산기계가 무관세 품목으로 지정되면서 러시아 내 포장재 생산 규모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같이 향후 농산품 가공 및 포장, 원료 등 식품 산업 전반에 걸쳐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



로 예상되므로 해당 국내 업체들은 러시아의 시장 환경 변화 추이를 꾸준히 모니터링하면서 확대되는 수요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다.

방글라데시, 합성수지 전량 수입 의존
글로벌 경기침체로 플라스틱 제품 생산기지 부각

방글라데시의 합성수지 시장규모는 FY09년 기준 5억9천만 달러이며, 유화업체가 전무해 플라스틱 제품생산에 필요한 원재료인 합성수지의 경우 전량수입해 의존하고 있다.

방글라데시에서 주로 수입하는 합성수지는 PP, PE, PVC인데, 최근 글로벌 경기침체로 미국과 유럽을 포함한 선진국에서의 플라스틱제품 생산이 크게 줄자, 방글라데시를 포함한 아시아 국가들이 플라스틱 제품의 생산기지로 떠오르고 있다.

주요 수요처는 film grade와 yarn grade용 레진으로 의류 포장, 시멘트·소금·설탕 등의 제품 포장용, 플라스틱 병 등의 제조에 쓰이는데, 행거를 포함한 각종 sheet들 그리고 폴리카

보나이트 시트, PP sheets, HIPS sheet, 폴리스틸렌 sheets, billboards, POPs, POSMs, dispensers, pipe, home appliances, luggage, danglers, banner stands, shop signs, kiosks, road safety signs, scroll signs, tri-vision, zigzag signs, automated moving signs 그리고 electro-magnetic signs 등이다.

방글라데시는 플라스틱 가구분야 사업이 호조세를 보이며, 특히 RMG용 플라스틱 행거 생산에 최근 엄청난 성과를 보인바 있어 향후 플라스틱제품 수출에도 매우 전망이 좋은 것으로 평가됨에 따라 원재료인 합성수지도 그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시아와 중동국가들의 플라스틱 제품시장은 최근 몇 년 동안 매년 6%씩 성장하고 폴리프로필렌의 전 세계 생산량은 2013년에는 지금의 2배인 3백50억 톤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방글라데시 플라스틱산업은 연간 수출이 2008년 기준 60억 다카(8천8백만 달러) 수준이며, 관계자에 따르면 1백20억 다카(1억8천만 달러) 규모의 수출 가능성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방글라데시 수입업체의 구매행태는 시세에 매우 민감해서 가격이 낮을 때 대량 구매해 장기

[표 1] 연도별·종류별 수입물량

(단위 : M/T)

종 류	2006~2007		2007~2008		2008~2009	
	수입량	증가율	수입량	증가율	수입량	증가율
PP	176,073	66.7	145,677	-20.8	142,428	-2.8
PE	80,861	52.7	93,357	13.4	91,238	-2.3
PVC	59,579	33.8	86,623	31.2	76,228	-13.6
합계	316,513	56.9	235,657	2.8	309,894	-5.1

※ 자료원 : 방글라데시 중앙은행

보유하는 경우가 많아 연도별 국별 수입변동이 심한 편이다.

최근의 국가별 수입동향을 살펴보면, PP의 경우 싱가포르와 태국이 전체 수입액의 50% 이상, PE는 싱가포르와 한국, 말레이시아가, PVC는 태국이 주요 공급국이 되고 있다.

현지 수입상에 따르면, 태국제품에 대해 높은 점수를 주고 있으며, 한국의 경우 물품 인도기간이 2달간 소요돼 동남아국가에 비해 1달간의 차이가 발생, 다소 달리기 어려운 여건이라고 알려졌다.

한편 한국과 방글라데시 간 실제 선박의 항해 일수는 20일 내외이나 내륙운송과 통관절차 지연으로 2달 정도 소요된다.

페루 리마에서만 매일 2만 톤의 쓰레기가 나오며, 그 중 5천톤은 재활용 가능한 것이나 재활용하는 것은 15%에 불과하며, 폐지는 70%가 재생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25.2%만 재활용하는 실정이다.

페루에서는 50년 전 영세민들이 플라스틱, 옷, 깡통, 종이 따위의 폐품을 모으기 시작해 현재 페루 내 10만 명이 재활용 폐품을 수거하며, 리마와 카야오 지역에 14개 폐품수거 단체가 있다.

폐품 중 일반 흰 종지와 우유팩 같은 종이팩 수거를 가장 선호하며, 강변이나 미라플로레스, 산이시드로, 산미겔, 라빅토리아, 라푼타 지역의 거리에서 가장 많이 수거하고 있다.

재활용 종이 펄프의 40%를 칠레와 미국에서 수입하나 막상 페루인들은 국내에서 내수를 모두 충당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낭비하고 있는 바, 김벌리클라크(Kimberly Clark)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재활용 펄프 95%를 이용해 우수한 질의 종이를 생산할 수 있다고 전해지고 있다.

종이를 재활용하면 1만3천그루의 벌목을 줄이는 효과가 있으며, 지난 2009년도에 2천5백 80톤의 종이를 재활용해 나무 1천3백그루를 벌목하는 것을 줄일 수 있었다.

폐품을 재활용하는 자치단체의 비율이 2007년 9%에서 2008년 13%로 상승했으며, 구체적으로 파스코주 자치단체의 41%, 아푸리막주의 34% 자치단체가 재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그 외 대부분의 자치단체는 수거한 쓰레기를 멀리 떨어진 지역에 산더미처럼 쌓아 장치하며, 일부는 쓰레기 매립장으로 보내거나 소각하는 실정이다.

재활용 폐품 수거는 매일 오전 5시 수거인들이 각자의 할당 구역에서 수거하기 시작해 하루 최대 2번까지 가능하며, 평균적으로 한 번 수거하는 데 8시간이 소요되고 있다.

수거한 폐품은 1주간 쌓아두었다가 흰 종지와 종이팩을 분류해 4kg까지 모은 후 흰 종지는 킬로당 0.80센티모, 종이팩은 킬로당 0.07센티모를 받고 폐품상에 판매한다.

폐품상에서 한 달간 9톤을 모은 후 흰 종지는 킬로당 1.50 누에보 솔, 종이팩은 킬로당 0.30센티모를 받고 종이공장에 판매하고 있다.

아직 페루는 재활용산업 도입단계이지만 에콰도르와 칠레 같은 인접국은 이미 보편화했기 때문에 페루도 점차 나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페루환경부는 재활용품 수거인들이 공식 조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지원을 약속했고, 페루교육보건부 또한 법령 29419번에 의거



해 재활용품 수거인들에게 더 많은 폐품자원 수거를 권장하는 기제를 마련하기로 했다.

캐나다, 회복세인 제지산업 2011년 중 흑자로 전환 예상

캐나다 제지산업은 지난 7년간 업계의 침체로 인해 약 50억 달러에 가까운 적자를 봤으며 관련 업계는 인원을 절반 가까이 줄이는 등 긴축 운영을 해왔으나, Conference Board of Canada에 따르면, 제지산업은 2011년 중 흑자로 전환할 것으로 보인다.

제지산업은 2009년 13억 달러 적자, 2010년 1억4천만 달러 적자에 이어 2011년에는 세전 기준 3억6천6백만 달러의 수익을 낼 것으로 전망된다.

제지업계는 그간 고비용의 제지공장 운영을 중단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효율성이 높은 설비를 다수 설치하고 2006년까지 2만6천개의 일자리를 정리하는 등 그간 업계는 구조조정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오고 있다.

경제 회복으로 인해 포장용지, 티슈페이퍼와 같이 특정 제지 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세에 있다.

중국과 같이 신흥시장에서의 제지 제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중국은 최근 펄프 시장에서 가격이 급상승시킨 큰 원인 중 하나로 평가되고 있다.

다른 국가에서는 경기 침체기간 동안 소비를 줄였던 반면 중국에서는 소비가 상당량 증가했다. 2008년 중국은 세계 펄프 생산량의

13~14%를 구입했으며, 2009년에는 그 비율이 20%까지 늘리는 등 펄프 가격 상승을 둔구하고 있다.

핀란드 항구 파업과 2월 칠레 지진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핀란드, 칠레의 공급이 중단됐고 이로 인해 펄프가격은 톤 당 천 달러까지 오르게 됐다.

현재 펄프가격은 톤 당 9백60달러이며 지난 6월에는 톤 당 9백80달러까지 상승한 것으로 예측된 만큼 올해 가을이 되기 전에 톤당 천 달러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생산량 증가로 인해 2011년에는 가격이 소폭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2011년 중 펄프가격은 강세를 보이다가 2011년 말 가격이 하향세로 돌아설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제지 가격의 상승세는 과거의 사례와 비교해 볼 때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데 이는 제지산업 내 생산 용량이 충분하고 남미 아시아 등 지역에서 더 많은 생산시설이 건설되고 있기 때문이다.

제지업계는 조심스럽지만 낙관적으로 전망하나 제지산업의 취약한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표적인 제지업계인 Catalyst의 경우 2008년 2억2천1백만 달러의 적자, 2009년 5백60만 달러의 적자로 그 폭을 줄이고 있으나 Campbell 강 주변의 제지공장은 문을 닫았으며 나머지 공장도 40%만 운영하는 실정이다.

출판용 특수제지 중 일부 제품에 대한 가격 인상이 예상되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그 수요도 점차 줄어들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캐나다 제지산업은 4년간은 생산량이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겠지만, 아시아, 남미지역의 생산 또한 꾸준히 증가하고, 북미 수요가 부진하며, 캐나다달러의 상대적인 강세라는 여러 요인으로 인해 제지산업 호황에 대한 전망은 밝지만은 않다.

독일, 폐 플라스틱 유회기술 상품화 눈앞 폐플라스틱 효과적으로 재활용 해

독일 브레멘에 있는 Oeko-Energie Umweltfonds 1 GmbH & Co. KG 재단은 친환경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신기술을 찾던 중에 폐 플라스틱을 유회하는 열분해법을 개발했다.

폐 플라스틱의 유회기술은 향후 독일의 폐 플라스틱 재활용 방법에 획기적인 변화를 줄 것으로 보인다.

Syntrol 열분해 기술은 가열, 기체화, 냉각의 3단계를 거쳐 폐 플라스틱을 유회하고, 이를 통해 플라스틱 100g당 85ml의 재생유를 추출할 수 있다. 추출된 재생유는 난방용뿐만 아니라 가 공절차를 거치게 되면 다른 목적으로도 사용이 가능해진다. 이 재단은 폐 플라스틱 유회기술을 탑재한 4개의 설비를 Mannheim에 설치해 연료를 추출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

플라스틱을 통한 유회사업 가운데 열분해법은 1937년부터 존재했지만, 대량생산 설비에 사용된 적은 없다. 독일의 설비 제조업체인 Nill-Tech는 열분해를 가능하게 하는 대량생산 설비를 제조하기 위해 노력했고, 2005년 스위스에 화학공업 시험 설비를 제작하는데 성공했다.

폐 플라스틱 유회기술로 추출되는 재생유는 난방용으로 사용 가능하며, 이 재생유는 독일공업규격 51603-1의 난방유와 흡사하다.

폐 플라스틱 유회기술을 탑재한 생산라인은 5천톤의 플라스틱 폐기물을 통해 연간 42억8천5백만 리터의 난방유를 생산하게 된다.

연간 독일에서 생성되는 폐기물은 1인당 3백~5백kg이며, 이중 10~15%는 플라스틱류이다.

독일의 공장에서 생성되는 폐 플라스틱의 양은 연간 약 1억8천만 톤이며, 그 중 4백50만 톤은 재활용된다.

현재 폐 플라스틱 중 40% 이상은 재활용품에 사용되며, 나머지는 소각을 통한 에너지 공급원으로 사용되거나 제거된다. 폐 플라스틱 소각 시 에너지변환효율이 20%인 만큼 비효율적이며, 비경제적이고 CO₂가 대량으로 발생한다는 점에서 생태학적으로도 적합하지 않다. 이와 비교해 폐 플라스틱 유회기술은 많은 이점을 가지고 있다.

폐 플라스틱 유회기술 이용 시 현재 독일의 석유 수입량 중 3~5%에 달하는 양을 생산할 수 있다. 이는 지난 10년간 유가가 3배로 댄 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한 이점을 가져다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폐 플라스틱 유회기술은 에너지변환효율이 80%에 달할 만큼 상당히 효율적이며 경제적이다. 폐 플라스틱 유회기술은 폐 플라스틱 소각과 비교했을 때 CO₂발생량을 2/3만큼 줄여주기 때문에 생태학적으로 적합하다.

Mannheim의 공공기관, 요양원, 병원 그리고 넓은 주택 단지에서 생성되는 폐기물의 양만으로도 충분히 생산라인을 지속적으로 가동할 수 있다. 